



# 서산문화원 2011 상반기

##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1. 2. 14(월)~2011. 2. 18(금) 09:00~18:00
- 강의기간 : 2011. 2. 28~6. 17 (16주), 단 임산부강좌 2. 28~4. 22(8주)
- 접수 방법 : - 방문접수(100%), 오전 9시부터 정원내 선착순(수강료 완납시 접수처리)  
 -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 키즈발레에 한해 현장추첨(접수일시는 상동)
- 전화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모든 강좌의 재료비는 별도이며 개인부담입니다.

구분	강좌	교육시간	정원	수강료	재료비(예상)
신규강좌	한지공예	월 10:00~12:00	20	40,000원	100,000원
	바이올린 초급	월 13:30~15:30	15	60,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풍수	화 10:00~12:00	20	40,000원	나경, 교재비(25,000원)
	천연비누와 화장품만들기	화 10:00~12:00	20	40,000원	120,000원
	플룻기초	화 13:30~15:30	15	60,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북아트DIY	수 10:00~12:00	20	40,000원	98,000원
	가야금	수 13:30~15:30	15	60,000원	악기지참
	문예창작	목 10:00~12:00	20	40,000원	필기도구지참, 교재상의 후 구입
	한문서예	목 10:00~12:00	20	40,000원	문방사우 준비
클라리넷	금 10:00~12:00	15	60,000원	악기, 교재, 보면대 지참	
생활공강좌	다도	월 10:00~12:00	15	60,000원	상담후 재료구입
	플룻 초급	월 10:00~12:00	15	80,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플룻 중급	수 10:00~12:00	15	80,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도예	월 13:30~15:30	20	40,000원	150,000원
	중국어 초급	수 10:00~12:00	20	40,000원	필기도구 지참, 교재상의 후 구입
	중국어 중급	월 10:00~12:00	20	60,000원	필기도구 지참, 교재상의 후 구입
	장구	월 10:00~12:00	15	60,000원	장구채, 필기도구 지참
	모듬북	월 13:30~15:30	20	40,000원	북채 준비
	수채화	화 10:00~12:00	15	60,000원	스케치북, 4B연필, 지우개 등 50,000원
	성인요가	화,금 10:00~12:00	25	80,000원	편안한 복장착용
	네일아트	수 10:00~12:00	20	40,000원	100,000원
	한글서예	수 13:30~15:30	20	40,000원	문방사우 준비
	전통무용 초급	수 10:00~12:00	20	40,000원	버선, 풀치마, 편안한 복장 착용
	전통무용 중급	목 10:00~12:00	20	40,000원	버선, 풀치마, 편안한 복장 착용
	규방공예	목 10:00~12:00	20	40,000원	73,000원(기본 바느질 도구 별도)
	전통민요	목 13:30~15:30	20	40,000원	-
바이올린 중급	목 10:00~12:00	15	80,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한국화	금 10:00~13:00	15	80,000원	100,000원, 문방사우 준비	
자수공예	금 13:30~15:30	20	40,000원	80,000원(기본 바느질도구 별도)	
전문가육성강좌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월 10:00~12:00	20	40,000원	150,000원(자격증 발급비용 30,000원 별도)
	폼아트	화 13:30~15:30	20	40,000원	150,000원(자격증 발급비용 50,000원 별도)
	가베지도사	목 13:30~15:30	20	40,000원	교구임대비 50,000원(수료증발급비용 없음)
	POP예쁜글씨	금 13:30~15:30	20	40,000원	53,000원(자격증 발급비용 50,000원 별도)
	리본공예	금 10:00~12:00	20	40,000원	130,000원(수료증 발급비용 10,000원 별도)
행복한예비엄마	임산부벨트	목 13:30~15:00	20	20,000원	65,000원(2.28~4.22, 8주 수업)
	임산부요가	화,금 13:30~15:00	25	40,000원	편안한 복장 착용(2.28~4.22, 8주 수업)
아동/청소년강좌	키즈발레 초급	월,수 16:00~16:50	16	80,000원	발레슈즈, 편안한 복장 착용
	키즈발레 중급	월,수 17:00~17:50	16	80,000원	대상 : 2003년생~2006년생
	키즈발레 고급	화,목 16:00~16:50	16	80,000원	신분증(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지참
	바른글씨 예쁜글씨	월 17:00~18:00	15	40,000원	필기도구 지참(초등 1~2학년 대상)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 서산의 유적

통권 제328호

2011 \* 02



서산문화원



## 목 차

2011년 • 2월호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논밭두렁의 잡초와  
잔디를 태워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조상님들의 의도를  
담고 있는 풍속이다.

- 03 소통으로 1등 서산을 만들자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서산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민속학적 고찰 (장경희 / 한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07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한기홍 / 컬처플러스 이사)
- 11 『한비자』 도덕에서 제도로 (문성환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14 새해의 새로운 소망을 담는 마을제 (이강열 / 학예연구사)
- 16 가야금 (조혜경 / 가야금 강사)
- 18 풍선아트 (김향자 / 풍선아트 강사)
- 20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
- 22 현대미술에 대한 짧은 생각 (조성찬 / 미술강사)
- 25 독립기념관 (김석중 / 독립기념관 교육문화부 차장)
- 28 온양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김시경 / 온양문화원장)
- 31 서산문화원 회원안내
- 32 문화원소식
- 33 시정소식

구분	강좌	교육내용	강사
신규강좌	한지공예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공예품 만들기(과반, 패물함, 휴지케이스 등)	박정란
	바이올린 초급	바이올린 운지법부터 시작, 초보자를 위한 바이올린 지도	이안나
	풍수	풍수사리의 기초부터 나경사용법 및 풍수전반 이해	이상호
	천연비누와 화장품만들기	천연비누와 화장품 제조법 습득 및 활용(선크림, 영양크림 등)	왕희경
	플룻기초	플룻 운지법부터 시작, 초보자를 위한 플룻지도	정광수
	북아트DIY	수첩, 통장지갑 등 북아트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지도	서성희
	가야금	가야금 연주법을 알아보고 우리민요 연주	조혜경
	문예창작	시(詩) 이론의 전반적인 이해 및 실기지도	박만진
생활공감강좌	한문서예	초보자를 위한 한문서예 지도 및 맞춤별 개인지도	박성호
	클라리넷	악기 운지법 및 기본 연주법 지도	이성관
	다도	다도에절과 차 음식배우기	최보승
	플룻 초급	다양한 곡을 학습하고 연주가 가능하도록 지도	정광수
	플룻 중급	교본 및 연주곡 연습	정광수
	도예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기 만들기	정현옥
	중국어 초급	초보자를 위한 중국어지도	김정옥
	중국어 중급	실생활 중국어지도(기초회화 가능자)	김병희
	장구	초보자를 위한 기초 풍물장구 지도	조병혁
	모듬북	기본타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가락 연주	장계순
	수채화	기초소묘부터 정물화, 풍경화 지도	김은주
	성인요가	다양한 요가자세 및 호흡법 지도	유갑숙
	네일아트	네일아트 실생활용 방법 지도	박선희
	한글서예	정자체부터 판본체까지 개인별 맞춤지도	김기배
	전통무용 초급	무용 기본동작과 입춤, 부채춤 지도(어르신문화학교 지원사업)	김묘규
	전통무용 중급	도살풀이 및 한량무 지도(어르신문화학교 지원사업)	김묘규
	규방공예	기본매듭과 바느질을 이용한 작품만들기(식탁보, 방석 등)	이갑성
	전통민요	다양한 전통민요 지도(뱃노래, 풍년가 등)	이정례
	바이올린 중급	바이올린 연주법 심화지도	이안나
	한국화	문인화와 사군자 그리기	조행섭
자수공예	다양한 문양의 자수를 이용한 작품만들기(앞치마, 카드지갑 등)	김현주	
전문가육성강좌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사)한국파티협회,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자격증 별도 취득가능	김향자
	폼아트	사)한국디자인아트협회 3급과정	김영실
	가베지도사	주)좋은교육 강사과정, 수료증 발급가능	김영숙
	POP예쁜글씨	사)한국디자인아트협회 3급과정	김영실
행복한예비엄마	리본공예	사)한국선물포장협회 그린과정, 수료증 발급가능	이성진
	임산부벨트	베넛저고리 및 아기용품 만들기	장옥경
아동/청소년강좌	임산부요가	원활한 분만과 태아 건강을 위한 요가지도	김혜균
	키즈발레 초급	영어와 동화를 접목한 발레지도 아이의 눈높이와 수업유무에 따라 선택	조선미
	키즈발레 중급		
	키즈발레 고급		
바른글씨 예쁜글씨	연필로 쓰는 예쁜 손글씨 지도	김화자	

○ 한국화, 전통민요, 전통무용, 다도, 중국어중급, 성인요가, 수채화, 한글서예는 2010년 하반기 수료증 발급자에 한해 2월 11일(금) 미리 접수받습니다.

- 수강신청이 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 폐강
- 모든 과목 8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제외)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과목은 성인대상입니다.(자녀동반 금지)
- **수강료 환불 : 3월 4일까지(3월 4일 이후 월별 수강료 환불)**  
환불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환불처리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수강취소시 수강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강의계획은 홈페이지 참조(<http://seosan.cult21.or.kr>)
- 문 의 : ☎041)669-5050 (서산문화원 사무국)
- 후 원 : 충청남도, 서산시

※본 프로그램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통으로 1등 서산을 만들자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의자왕이 백제를 패망으로 치닫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충신(忠臣)의 진언을 묵살함이었다. 최고의 충신이었던 성충(成忠)이 죽음에 이르러 임금께 진언한 한마디는 장차 전쟁이 있을터이니 침략군이 쳐들어 오면 침현과 기벌포를 단단히 방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계속 궁녀들과 더불어 향락에 젖어 국사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충신들의 충언을 묵살하고 오히려 투옥시키는 일이 있는 후 나당 연합군은 침현과 기벌포를 통하여 쳐들어옴으로써 백제의 종말을 맞은 것이다.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던 충신 성충과 홍수는 옥에 갇히고 유배되니 모두가 왕의 주변에 있는 아첨배들에 의해 왕의 귀와 눈을 가렸던 것이다. 작금의 실태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진정한 논리로 진실을 고하고 왕의 잘못을 누우치게 하고자 하는 충신들과의 소통부재가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다.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탐락(耽樂)에 빠져 주위에서 달콤한 말로 왕을 칭송하고 계속 음주와 가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탐관오리들의 말에만 귀기울리고 몇 안되는 충신들의 곧은 소리는 죄로 다스렸던 의자왕! 그가 후세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것 같다.

지자체를 다시 시작한 것이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과의 소통이라 생각한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공무원들은 왜 달콤한 말로만 안정되이 말하는지 리더들은 자신의 철학을 굳건히 다지면서 깊이 사유(思惟)해야 할 것 같다.

의자왕에게 감히 누가 진실을 아될 수 있었을까? 역사를 뒤져봐도 몇몇 충신들뿐이다. 감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얘기해봤자 간신배들에 의해 차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어용공무원들과 같았으리라 본다.

인터넷의 자율화로 많은 얘기들을 한다지만, 바른 소리 올려서 투옥되는 현실이라면 감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언로를 터서 많은 의견 속에서 시민들의 무궁한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발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곧은 소리로 불이익을 받고 미움을 받아 본보기로 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리더들은 각성해야 되고 이 시대에는 절대로 그런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금년 신묘년엔 모든 국민이 서로 소통하는 해가 되어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험뜯지 말고 사랑과 배려로서 같이 참여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희망해본다.

# 서산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민속학적 고찰

장 경 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차 례

- I. 머리말
- II. 현존하는 고려말 염직 유물
- III. 고려말기의 염직제도와 제작 장인
- IV. 문수사 불복장직물의 문양 비교
- V. 맺음말

중심문양인 비운문은 운두가 크고 활짝 피어오르고 아래로는 다섯 개의 구름이 뭉개뭉개 따라 오르면서 점점 구름의 꼬리가 날씬해지는 형태로써 상하 한쌍의 구름이 단위가 된다. 이러한 비운문은 상감청자와 불화의 의복문양으로 흔히 볼수 있는 문양이다. 보조문양인 칠보문은 불교의 무형수경에서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차거, 마로로 표현하거나 법화경에서는 금, 은, 유리, 마노, 차거, 진주, 문괴로 나타나기도 하여 장엄장식으로 사용한다. 이 비운 칠보문단에는 화염보주, 서각, 산호줄기, 책, 분동, 성수잎사귀 등의 7가지 보물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비운문과 7보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된 것은 고려말기로 추정되는 천은사금동불감의 정면벽의 부조가 있다. 이 불감의 정면부조에는 영지형의 구름이 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중앙의 불보살 상과의 사이에 나뭇가지나 둥근 바퀴모양의 금화, 은화, 구슬과 같은 유리 등이 흩어져 있다. 두 문양은 재료와 장식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 외에는 대단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이 곧 고려말기 염직의 시대적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용문양으로는 남색능지만자용문능과 청록색운문사지 용접문인금이 있다. 남색능지만자용문능은 선염한 비단실을 날실과 씨실로 하여 능직으로 짰다. 날실의 밀도는 인치당 123올이다. 단위문양의 중심문양은 3조룡이고, 보조문양은 만자문이다. 3조룡이 다시 반복되는 단위는 5.0×7.0cm이다. 3조룡은 화염보주 및 용의 갈기가 힘차게 휘날리며 위로 솟구치는 울동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조문양인 만자문은 용문양이 없는 부분을 뿔뿔하게 채워주며, 만자문과 만자문 사이에는 2줄의 선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만자용문은 원의 출토유물에도 있다. 문수사의 용과 같은 3조룡이지만 문수사의 용이 날씬하고 위로 용솟음치는 울동적인 표현인데 비하여 원대의 용은 앞서 능화형 용문과 더 비슷한 모습으로 형태가 딱딱한 편이다. 만자문도 고려의 것은 만자의 끝이 연결되어 각 끝으로 길게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그 사이사이에 2줄의 선이 들어가 있다. 원나라의 만자문은 만자가 독립되어 있고 그 독립된 만자를 2중의 능문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고려와 원의 만자용문은 문양의 기본적인 결합이나 배치는 흡사하나 세부의 표현에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

청록색 운문사지 용접문인금은 날실과 씨실을 생견사로 짠 듯한데, 그 까닭은 문수사유물 중 가장 뽕뽕하기 때문이다. 직물의 폭은 46cm이고 총 길이는 84cm이다. 날실의 밀도는 인치당 120올로서 매우 촘촘하고 바탕 직물은 운당초문사이다.

문양은 직조방법이 아니라 염색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판에 무늬를 새기거나 찍는 판염의 일종인 인금으로 문양을 새겼다. 금박을 판에 발라서 찍어냈는데 순금이 아닌 금과 다른 물질이 서로 섞인 합금판으로 찍은 것 같으며, 인금의 색상이 금빛부터 적황색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색을 내는 것에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유사금을 만드는 훈금법이나 가금법을 제작하였다는 기록과 부합된다. 문양은 각각 3개의 판을 사영하였고, 문양의 배치도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문양판 3개는 즉 중심문양, 보조문양, 주변문양으로 나누어 서로 연결부위가 어긋나 있다.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은 각각 2중의 테두리 안에 위치하며 그 외곽으로는 당초문대가 둘러진다. 중심문양은 1쌍의 용이 물속에서 마주보고 있는 문양이고, 부속문양은 2단의 크고 작은 나비문양대가 중심문양의 상하 양쪽에서 대칭하고 있으며, 주변문양은 보조문양의 바깥쪽으로 여의두문과 영락연주문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중심문양은 한쌍의 용이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대각선으로 대칭되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다. 물결은 잔잔한 가운데 물굽이가 강하게 표현되어 문양에 변화와 생동감을 준다. 그 물굽이는 운당초의 모습과 흡사하다. 용은 3조룡으로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고 입에서 불꽃을 내쉬며, 출렁이는 파도 사이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보조문양은 2단의 나비문이다. 중심에 가까운 첫째 단의 나비문양은 둘째 단의 나비보다 조금 더 크고 모두 22마리의 나비가 크기와 형태도 다양함 공간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다. 둘째단의 나비는 모두 11.5마리인데, 첫째단과 달리 나비의 크기나 형태가 거의 일률적이다. 그러면서도 2마리의 나비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공간이 많이 비어서 시원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나비의 특징을 살려서 앞모습과 옆모습까지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솜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 안에 찍을 수 있는 나비의 개수를 계산하지 못하여 반쯤 부족하게 제작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양표현의 대체적인 특징과 일치하는 점이다. 중국의

문양이 치밀하고 정확하며 면밀하고, 일본의 문양이 푹 떨어지고 깔끔한데 비하여, 우리의 문양은 어딘지 어리숙하고 자연스럽게 처리한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조문양은 여의두문과 영락연주문인데, 길고 짧은 것 17쌍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다. 영락연주문의 긴 것의 구슬은 14개 내지 15개이고, 짧은 것의 구슬을 9개가 달려 있으며 그 끝에는 보주가 매달려 있다. 이 또한 완벽한 솜자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우리 조형미술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들은 매우 독특하여 우리나라의 유물은 물론 중국의 유물과도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만 테두리 문양인 당초문의 경우만 비교가 될 뿐이다. 인금에는 두 종류의 당초문이 새겨져 있는데, 중심 문양의 테두리 당초문은 일정한 포물선 위의 빈 공간에 그대로 당초문이 위치해 있고, 중심문양 쪽의 당초문보다 작은 편이다. 이러한 당초문은 14세기의 고려 사경에 새겨진 당초문양과 유사하다. 인금과 사금 둘다 판에 문양을 새겨서 찍어내는 제작기법 상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찍혀진 당초문의 모습도 대단히 유사하다. 13세기의 당초문과 비교하면 시대적인 차이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꽃무늬의 복합문양에는 장곡사 유물에 녹지 보상화문능라가 있다. 이 문라는 녹색으로 선염한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키면서 능직으로 짠 것이다. 이러한 능직에 교힐이 가능할 지는 알 수 없다.

##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려말기의 염직을 문헌자료와 실물자료로 살펴 보았다. 문헌으로 보면 당시의 염색, 염직의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중국에서도 탐낼 만큼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 뛰어난 염직물을 원나라에 많이 보내었다.

특히 이러한 염직물은 생산하였던 곳이라고 생각되는 염직관청의 제도가 여러번 바뀌고, 지방의 공물까지 품질관리를 하여 제품의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문적인 관청이 아닌 절에서도 우수한 염직물을 제작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고려말기의 실물자료가 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상의 복장유물이라는 점도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실물자료들은 불복장유물이어서 보존이 잘 되어 있었으며, 염색이나 직조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았다. 그리하여 1346년 문수사 소장 직물의 무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사나 은사, 금은박을 사용하여 화려한 무늬를 표현하였다. 둘째, 무늬의 종류는 참새, 오리, 나비, 토끼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동물이나 귀갑무늬, 능문이나 기하학적인 무늬를 비롯하여 작은 꽃무늬가 있었다. 셋째, 무늬의 구성은 한 가지 소재의 단독무늬이면서 작고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넷째, 무늬의 배열방법은 작고 단순하며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하였다.

이러한 직물 유물의 문양은 같은 시기의 공예품, 그중에서도 특히 나전칠기나 삼강청자의 문양과 친연성이 많았다. 이것은 공예적 기법의 연관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같은 시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원나라의 염직과 비교하여 같은 시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문수사의 불복장직물에 표현된 고려 시대의 문양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아 한국적 문양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 차례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와 문헌상 나타난 장태제도
- III. 명종태봉에 관한 고찰
- IV. 맺음말



한 기 홍  
컬처플러스 이사  
서산향토문화연구회원

### 2-2) 장태에 대한 관념

우리민족은 신분을 막론하고 장태를 상당히 중요시했고 장태가 태주인공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장태 제도가 신앙으로까지는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전통 사상인 풍수지리와 결부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음의 실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무릇 태에서 내려온지 3월에는 명칭을 화정태(和正胎)라 하고 5월에는 연장태(軟藏胎)라 하고, 3년에는 장응태(壯應胎)라 하고 5년에는 중부태(中符胎)라 하고, 7년에는 향양태(尙陽胎)라 하니 이를 육안태법(六安胎法)이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서에 이르기를 ‘남자가 15세가 되면 학문에 뜻을 들 나이이고, 여자가 15세가 되면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남자는 마땅히 연장태, 중부태, 향양태 중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학문에 뜻을 들 나이를 기다려야 하고, 여자도 또한 화정태, 장응태, 과양태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니 남자가 만약 좋은 땅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구경(九經)에 정통하며 단상(團爽)하여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 되는 것입니다.> 『문종실록』즉위년 9월 8일

### 2-3) 민간 및 조선왕실에서 태치리와 장태

시대와 신분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경사스러운 일로 축복 받을 일임에 틀림 없다. 또한 태줄은 새생명 과 산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우리 선조들은 이를 아주 중요시 해 왔다. 새생명의 장래를 위하여 출산에 수반하는 태를 나름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는데 크게 민간과 왕실로 구분지을 수 있다. 민간에서는 출산에 따른 태처리 방법으로 손이 없는 길한 방향에 태를 묻는 매태(埋胎)의 방법과 왕겨등으로 태를 태우는 소태(燒胎)가 일반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난치병 등의 약용으로 활용하고자 태를 말려서 보관하는 건태(乾胎)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해안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지리적 특성으로 태를 떠내려 보내거나 돌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도 태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처리되고 있었지만 왕실에서 행해졌던 제 절차를 거쳐 산실청이란 임신기구를 구성하고 출산과 더불어 태를 세척하여 보관하며 태봉지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역으로 태봉을 조성하고 길일을 골라 안태사를 파견하여 태를 봉안하는 왕실의 태처리 방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이는 왕실의 위엄이나 권위의 상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가봉(加封)<sup>4)</su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국왕의 자손들은 대부분 태봉이 있다. 또한 자손 중에 왕위에 오르면 그 태주인공의 태봉은 가봉되어 화려하고 장엄하게 석물로 치장하고 팔각의 난간석을 두른다. 그러나 왕후의 태봉이 가봉된 경우는 세종비(소헌왕후), 세조비(정희왕후), 폐비윤씨(연산군의 모친) 3분 뿐이다. 이는 민간에서도 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봉과 유사하게 태를 장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에 왕비의 태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거의 모든 왕비의 태봉이 가봉되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위를 방계 혈족이 계승한 경우 선대는 당시에 왕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태봉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있다 해도 형식적인 태봉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 2-4) 태봉지의 선정과 조성 및 관리

왕실에서는 왕비가 임신을 하면 출산전 3개월 전후에 산실청(産室廳)이라는 임신기구가 설치되어 출산을 대비하게 된다.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3~7일 사이의 길한 날을 택일하여 태를 깨끗이 세척하여 태호(胎壺)에 담아 밀봉하고 「某年某月某日某時 中宮殿阿只氏胎也」라고 적힌 빨간색 패를 붙여 보관하고 있다가 태봉이 조성되면 태봉으로 옮겨 장태하게 된다. 태봉지의 입지 선정에 관해서는 몇몇 책자에 언급되어 있다. 『세종실록』에는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듯 하여야만 길지가 된다.”<sup>5)</sup>라고 하였고 『태봉등록』에는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내맥이 없는 곳이며 용호가 마주보는 곳에 써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현종개수실록』

4) 태주인공이 후에 임금에 자리에 올라 태봉의 격을 격상시키고 주변을 재단장 하는 일

5) 풍수지리학적 돌혈

에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들판 가운데의 둥그런 봉우리를 선택하여 그 위에다가 태를 보관하고 태봉이라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표식을 하여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릉(園陵)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태봉지는 볼록하게 우뚝 솟아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는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풍수지리학에서는 돌혈(突穴)의 명당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의 태봉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선초기에는 관상감을 두고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를 지방에 파견하여 엄정히 선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방관의 추천으로 관상감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약화되었다.

<관상감이 이뤄기를 “평상시 증고사를 뽑아 보내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살피 보고 3등으로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 두는데, 원지와 원손은 1등, 대군과 공주는 2등, 왕자와 공주는 3등으로 태봉을 초계(抄啓)하여 낙점을 받아 태를 저장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이후 만들어 둔 장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금 여러 아기씨들의 저장하지 못한 태가 한둘이 아닌데 오래지 않아 태를 저장 하라는 명이 제시면 보내지 못하더라도 각도 도사로 하여금 본감의 지리학 관원을 거느리고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미리 살피어 등급에 따라 재기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두었다가 임시하여 이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전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35년 6월 을묘

태봉지에도 1, 2, 3등급이 있었으며 태봉의 명부는 조선초기부터 만들어져 있었으나 임란으로 인하여 소실되는 바람에 선정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아래와 같이 태봉조성에 따른 과도한 부역 및 경작지 침식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폐단과 이를 개선해보려는 왕실의 의지가 보인다. 또한 왕실에서는 이를 보상 또는 무마하고 왕실과 지방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군현의 격을 격상시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안태사 민점이 이뤄기를 “두 공주의 태를 보관할 때에 백성의 전답 약간이 금표 안에 들어가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둔전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중략... 성상으로부터 왕자와 공주에 이르기 까지 모두 태봉이 있었으니 이러한 우리나라 풍속의 폐단에 대하여 식견있는 자들은 병통으로 여겼다.> 『헌종개수실록』11년 3월 19일

<예 조가 이뤄기를 “대전태실을 봉심(奉審)<sup>6)</sup>하고 조성할 것을 전례에 근거하여 계품(啓稟)하였는데 성상께서” 형식적인 일을 나는 매우 싫어 한다. 봉심하지 말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신들은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하여 주시고자하는 지극한

6) 봉심(奉審)은 찾아 뵈고 받들어 모심을 뜻함

성상의 뜻을 흠양합니다. 그러나 만일 조성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후일 필시 그곳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대전과 왕세자의 태장(胎藏)이 모두 정토사(淨土寺)의 전봉(前峰)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예조 당상, 과상감 제조각 각1원이 가서 그대로 안장되어 있는가를 봉심할 일을 길일을 가려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직군(守直軍)을 정해서 나무하고 끌뜯는 것만을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4년 8월 1일

<본조 금상이 즉위한 원년 기해에 어태를 현에서 20리 북쪽 속곡산에 안치하고 남해현을 곧명현에 합쳐서 곧남군으로 승격시켰다.> 『세종실록』 「지리지 곧남군」

<처음에 임금의 태실을 기천의 임내(任內)인 은풍땅에 봉안하였는데 임금이 즉위하자 기천과 은풍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서 군으로 승격시키고 풍기라고 부르고 기천의 옛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다.> 『문종실록』 원년 9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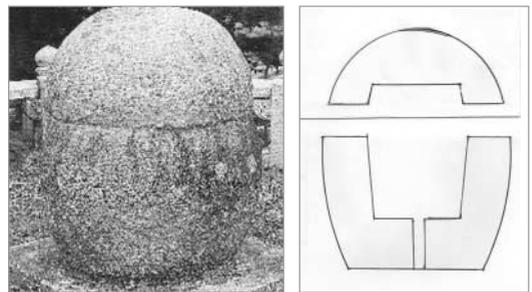
<금산현에 태를 안치하게 하고 금산을 승격시켜 군으로 하였다.>  
『정종실록』 1년 4월 5일

태봉이 조성되면 길일을 골라 안태사로 하여금 태를 조성된 태봉에 안치토록 하였으며 태봉 조성이 모두 끝나면 수호군을 두어 태봉을 보호하게 하였다. 『경국대전』 병전(兵典) 잡류(雜類)에 “선왕, 선태후의 경우에는 4명 친진(親盡)<sup>7)</sup>하면 2명, 왕과 왕비의 경우에는 8명, 왕세자는 4명의 수호군으로 하여금 태봉을 지키도록 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편의상 그 기능을 인근 사찰에 맡기기도 하였다.<sup>8)</sup>

## 2-5) 태봉의 구조

조선시대 태봉은 크게 6가지로 구성 된다.

첫째, 석함(石函)이다. 석함은 태호를 보관하는 것으로 본체 부분과 뚜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화강암 석질로 본체부분은 대체로 원통형을 이루고 뚜껑 부분은 위가 볼록한 샷갓모양을 이룬다. 그리고 태호를 보관하는 태함본체 부분의 아래공간에는 그림과 같이 구멍을 뚫어 물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태봉이 조성된 주산과 태봉산의 정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태함사진 및 단면도)

7) 왕실에서는 5대, 민간에서는 4대까지 조상을 모시고 제를 올리는 것

8) 윤석인, “조선왕조의 태실 변천 연구”

# 『한비자』 도덕에서 제도로



한비자(韓非子)는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다. 한비자는 일찍이 유가의 계승자인 순자의 문하에서 배웠지만 유가에 머물지 않고 법을 통한 국가 시스템의 개혁을 모토로 내세운 새로운 사유의 대표자가 되었다. 사실 법의 가치가 한비자 등의 법가들에게만 중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가가 다스렸던 국가에도 법은 중요한 통치 원리였다. 하지만 법가의 핵심은 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법에 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법가(法家)의 등장은 특별한 데가 있다. 법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혹은 모델)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상가들이었다. 법가 이전의 제자백가들이

도덕이라는 관념을 통해 천하를 이해했다면, 법가들은 그러한 천하에 어떤 방법으로 실제적인 통치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가는 국가 통치의 근간을 형벌과 제도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혁신적인 사상가들이었다.

법가의 등장은 시대적 요청의 결과였다. 어느 순간 통치자들은 유가나 묵가에 지겨워졌고 새로운 질서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중화의 패권을 꿈꾸던 여러 제후들에겐 이미 굳건하게 자리잡힌 귀족 관료 세계가 있었다. 법가는 진(秦)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진나라는 당시로선 중화 질서의 서북 변방 제후국에 지나지 않았지만, 법가의 등용을 통해 단기간에 전국 시대의 패자를 꿈꾸는 강국이 되었다. 진의 법가들은 도를 생각하는 대신 이득이 되는 길을 추구했으며, 모든 것을 계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군주가 취할 길은 조용히 물러앉은 겸허한 몸가짐을 귀중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다. 군주는 정사를 스스로 맡아하지 않고 그 일이 잘되고 못된 것만을 분간하며 계략을 스스로 짜내지 않고 복과 재앙의 조짐만을 알아낸다.

…군주가 한 말에 신하가 응해오면 그 약조로 한쪽 계(契)를 잡아두고, 이미 그 일이 진척되면 약조한 또 한쪽의 부(符)를 손에 쥐어 든다. 부(符)와 계(契)가 맞추어지는 데가 상과 벌이 시작되는 데다. 현명한 군주가 취할 길은 신하로 하여금 자기 의견을 진솔하게 하여 그 말이 실제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한비자, <주도(主道)>]

한비자 또한 진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한비자는 진에 의해 쓰이지 못했다. 진시황은 한비자를 무척 존중했지만 운명은 한(韓)나라의 왕족 출신인 한비자가 진나라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진시황과 한비자 사이를 이간한 인물은 한때 순자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문 이사(李斯)였다.

한비자는 군주의 역할을 ‘무위(無爲)’로 규정한다. 훌륭한 군주는 무위해야 한다. 법은 투명한 방식으로 실행될 뿐이고, 그 실행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관리들이 맡는다. 군주는 관리들이 법을 제대로 실행하는가를 판단하는 최종 심급일 뿐이다. 유위의 결정제인 법(法)을 중심으로 무위의 통치를 주장하는 아이러니! 하지만 법가(法家)와 도가(道家)의 만남은 일찍부터 통찰되어 왔다. 예컨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는 한비자와 노자를 같은 항목 속에 다루고 있다.

현실정치에서 법가는 생각만큼 잘 쓰이지 못했다. 논리가 치밀하고 매우 실제적인 국가 경영서로 충분했지만 전국시대의 제후들은 법가를 통치이념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법가는 통용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법가가 군주를 위한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득권 귀족 세력은 군주권의 강화를 어떤 형태로든 바라지 않는다. 또한 피통치 계급인 민(民)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강제되는 억압이 엄혹해지면 그것 역시 자신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강압이 될 것임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한비자의 사상이 도가의 사유와 맞닿아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깊다. 엄밀히 말해 법가의 목표는 법 자체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비자는 법의 정당함 자체에 시비를 걸지 않는다. 중요한 건 척도가 아니라 법의 제대로된 실행이다. 법의 실행을 치우치지 않고 가장 투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특정한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이런 까닭에 한비자의 법가는 군주의 무위를 주장한다.

한비자의 법치주의는 궁극의 목표라기보단 일종의 방편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비자의 법치

에는 법의 최종 집행을 결정하는 군주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가와 한비자가 구별되는 지점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법은 그 운용의 차원에서 형평성을 잃는 순간 무시무시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법치는 종종 권력 아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법가의 법 권력이 군주를 위한 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법가의 논리는 태생적으로 위험성을 내장하고 있다. 기계적이고 균질적인 법 앞의 평등은 위험하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제도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한비자의 사상은 전체주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특히 군주의 도덕성을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의 가치를 공적(公的)인 것으로 이상화했다는 점에서 한비자는 순진한 사상가였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비자의 진심은 아마도 그 반대였을 것이다. 한비자가 보기에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다. 법가의 군주관은 실제로 군주에 대한 맹신(충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군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유도된 것이다. 법은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비자의 이념 속에서 법은 벌을 주거나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취해야 할 적극적인 안전 장치였기 때문이다.



글쓴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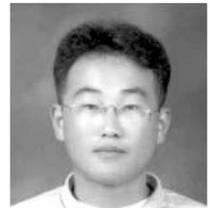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 새해의 새로운 소망을 담는 마을제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의 결심과 함께 가족의 건강과 소원을 빈다. 이런 기원은 가족을 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로 확대된다. 마을 구성원들 모두가 한해 큰 우환이 없기를 바라고, 한해 농사가 풍년이 되길 바라는 마을제를 지내게 된다. 그리하여 음력으로 1월을 맞이하는 2월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마을 행사들이 열린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락별로 곳곳에 전통있는 마을제 행사가 열린다. 현재 부락에서 거행되는 마을제는 크게 당제, 산신제, 벧가리제(화간제), 장승제, 서낭제 등으로 나뉜다. 이들 마을제의 특징은 정월달과 2월 초사이에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이는 예측적(預祝的)기원의 의미이다. 즉 전통적인 제례는 봄과 가을에 지내는데, 봄에는 예측적인 기원제이고, 가을에는 그 결실에 대한 감사제 성격이었다. 우리지역의 마을제는 가을제례는 없어지고, 봄의 예측적인 성격만 남았다. 이들 마을제 중에서 명맥을 지키고,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예연구사  
이강열

**창리 영신제**는 마을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적어도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927년에 발간된 『서산군지』에서도 “창리 성황당은 부석면 창리에 있고, 초가로 된 2평 집이다. 제사는 정월에 하는데 수백년간 어업자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는 무녀가 기도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의 영신제와는 다른 이름이지만, 거의 모든 설명이 영신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영신제는 정월 초삼일부터 초사일까지 지내고 있는데, 음력 1월 3일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드리는 것으로 제의가 시작되고, 다음날인 1월 4일에는 영신당에서 무의식(巫儀式)의 영신제가 거행된다. 제례순서는 풍어놀이→거리제→당제→산신제→장군굿→대감굿→각시굿→도당대감굿→오방굿→소지→용왕굿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영신제의 주신으로는 임경업 장군과 임장군 부인을 모셨다. 창리 영신제에는 무의식을 주관하는 보살들 이외에는 남자들만 참석한다. 창리 영신제는 마을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이면서 마을민의 안녕과 단합을 위한 대동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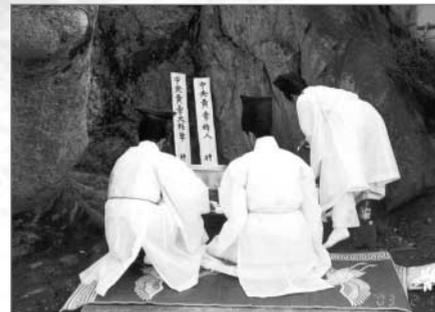
**인지면 야당리 벧가리제**는 정월보름에서 2월 초하루까지 행하여진다. 벧가리놀이의 구성은 입장→지신밟기→벧가리대 세우기→화간제→농사놀이→벧가리대 눕히기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벧가리제의 핵심인 벧가리대 세우기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위에는 벼·보리·조·팥·기장 등 오곡을 매달고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을 거꾸로 틀어 대동샘 옆에 벧가리대를



(창리 영신제)



(아당리 벧가리제)



(수당리 장승제)

세운다. 이후 2월 초하루가 되면 벧가리대 앞에서 제를 지내는데 이를 화간제라고 한다. 마지막인 벧가리대 눕히기에서는 벧가리대에 매달았던 오곡을 풀어 싹튼 상황을 살펴보고, “오곡이 모두 싹이 잘 트었으니 올해는 풍년이 들겠네! 벼 만석이요! 보리 오천석이요! 조 삼천석이요! 팔 이천석이요! 기장 일천석이요!”라고 하면 주민들이 풍년을 맞이하는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뉘 벧가리대를 작도로 썰어 오곡과 함께 섬에 담아 집으로 돌아간다. 인지면 야당리 벧가리제 놀이는 서산벧가리대놀이로 제26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후 명맥이 잠시 끊겼으나, 최근 보존회가 결성되어 다시 벧가리대 놀이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당리 장승제**는 약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자 이들을 위로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장승제는 정월 14일 자정에 시작하여 15일 오전에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승제를 지내기 위한 장승은 해마다 13일에 만들어 세우고, 마을 뒷산에 임시 산신제단을 만들어 정월 14일 밤에 산신제를 지낸다. 15일 아침식사 전 동방매이와 북방매이를 지내고, 아침 식사 후에는 중앙매이 장승제를 지내고나서 장승제에 사용하였던 모든 일시적인 도구를 불사하며 마무리한다.

서산의 마을제 특징은 유교식(儒敎式)과 무교식(巫敎式)으로 나뉘는데, 유교식은 전통적인 유교 방식에 의해 제를 지내는 것으로 남자위주로 제가 진행된다. 무교식은 유교식과는 달리 무속인인 여자가 제례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모든 마을제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한 서산지역은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마을제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내륙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대동제형태의 산신제, 장승제, 벧가리제와 함께 해안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풍어제는 일반적으로 당제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들어 서산문화원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의 전통이 있는 마을제들을 기록하여 영상자료로 남기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자칫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중한 자료를 남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에 『서산의 신도비』중에서 김유경과 관련된 내용 중 유척기(俞拓基)는 외손자가 아니라 사돈지간이며, 윤급(尹汲)은 윤번(尹卞)으로 정정합니다.



# 가야금



조혜경  
가야금장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현악기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가야금, 거문고일 것이다. 이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야금이다.

이제는 국내 여러 대학에 우리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국악과가 있고 그곳에서 가야금의 전통 맥을 이어 전수한다. 또 한편으로는 팝송, 클래식 등을 접목하여 우리의 악기 가야금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음악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가야금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거문고라는 걸출한 악기가 있었다. 거문고는 저음으로 중우한 느낌과 술대라는 막대기로 강하고 박력있는 느낌의 연주법 때문에 남성적인 악기라고 인식되어 왔다.

가야금은 통일 신라시대 3죽 3현(대금, 중금, 소금,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의 악기중 하나로서 서기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실왕이 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쟁”을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역사적 고찰을 연구하는 어떤이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내려온 악기가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신라 진흥왕 때 기록을 보면 악성 우륵은 가야국 사람으로 상가라도, 하가라도, 사물, 물혜, 달기 등 모두 12곡이나 만들었고 나라가 망하자 그의 제자인 이문과 함께 신라로 망명하였다. 그 후 진흥왕의 명을 받아 지금의 충주인 국원에서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가르쳤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쳐 널리 전파 시켰는데 특히 가야금은 일본까지 전해져서 “신라금”이라고 불렸으며 그때의 악기가 지금도 일본왕실 금고인 “정창원”에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가야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궁중 음악이나 풍류 계통의 음악을 연주하는 “풍류 가야금”, 즉 “법금”과 민요나 산조를 연주하는 “산조 가야금”이다. 두 가야금의 차이는 큰 오동나무를 통으로 파내어 그 위에 12줄을 얹어 소리를 내던 것이 “풍류가야금(법금)”이고 시대적으로 한참 뒤에 만들어진 “산조 가야금”은 앞판 오동나무, 뒷판 밤나무를 붙여서 그 위에 12줄을 얹어 소리 내는 크기가 조금 작은 가야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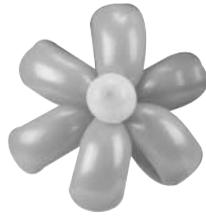
가야금 연주시 자세는 왼편다리를 안으로 오른편 다리를 왼편다리 밑으로 들어가도록 한다음 30° 각도로 가야금을 비스듬히 오른쪽 무릎위에 올려놓고 연주한다. 가야금 줄은 명주 30가닥 정도 꼬아서 만들어지며 굵은줄 일수록 저음이고 가늘어 질수록 고음의 소리를 낸다.

요즘 여러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인일지” 교육을 지향하면서 구음에서 오선보를 이용한 악보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 음악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중국과도 음악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5음계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7음계를 모두 표현 가능한 악기인 25현 개량 가야금이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25현 개량 가야금은 다른 나라의 음악과도 협연이 가능하여 우리악기와 우리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서양의 고전음악이 국제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의 자국음악은 그 보급이 제약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요즘 우리는 자극적이고, 다소 선정적일수도 있는 대중가요, 팝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고전음악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어느 광고에서 보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과 관점에서 다른 나라 또는 본인들의 나라에서 흔히 보고, 듣는 문화와 음악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과 한국인이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가야금은 약 1,400년 이라는 역사 속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침략과 억압이 있었어도 선조들은 지키고 계승하여 우리악기 우리 음악을 물려주었다. 선조들은 우리가 그들이 지켜준 우리 것을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TV, 라디오에서 가야금 소리 거문고 소리가 흘러나올 때 지루하다고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한국인이 라면 단 한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야금 산조, 가야금 명창을 귀 기울여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권하고 싶다. 진양조 장단에서 휘모리 장단까지 선율이 빨라질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심장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김 향 자  
풍선아트강사

풍선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아이  
들이나 가지고 노는  
것 이라고 생각한  
다. 내가 풍선을 접  
한지 9년이 지나간

다. 그때만 해도 많이 보급되지 않아 풍선을 가  
지고 무슨 데코를 하느냐하며 무시 하는 사람들  
이 많았었다. 지금은 어느 행사장을 가나 빠지지  
않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다.

유럽등지에서는 풍선이 아이들의 두뇌개발과 노인들의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풍선은 두 손을 사용해야하고 집중  
력도 요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같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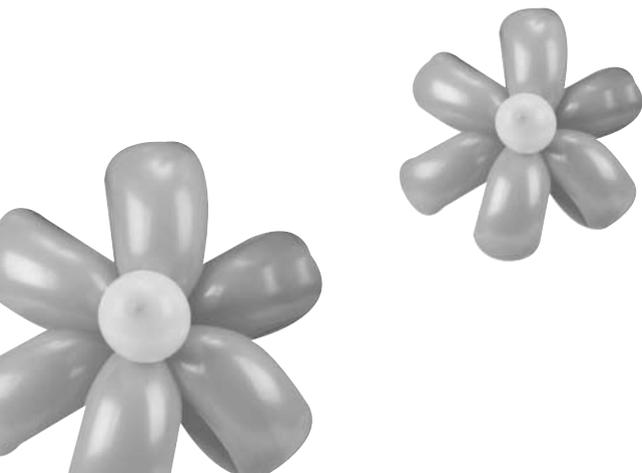
이제는 어떤 행사장에도 빠지지 않는 풍선 데코레이션이나 페이스페인팅(얼굴이나 몸 등에  
전용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 풍선 장식이라 해서 모두 풍선만가지고 데코  
하는 것이 아니다. 조화나 각종 오브제를 사용하여 럭셔리한 것도 만들기 때문에 기업체나 리셉션  
현장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풍선은 꼭 불어서만 데코하는 것이 아니라 불지 않은 풍선으로도 드레스나 헤어핀, 풍선 꽃  
다발, 인형, 코사지 등...다양한 방법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며 공간장식과 파티장식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데코이다.

지역행사에는 화환과 현수막이 무대를 차지한다. 획일적인 무대에 풍선데코로 꾸며주면 색다르고 멋지지 않을까? 천연 라텍스로 만들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없고 동그란 라운드풍선, 길다란 요술풍선, 하트 풍선, 도넛 모양의 풍선, 얼굴그림 풍선, 꼬리를 연결하면 어느 것이든 만들 수 있는 링코 풍선, 꼬불꼬불한 모양 풍선 등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풍선이 나와 만드는 재미를 더해간다. 각종 행사장에 가면 아이들이 가장 길게 줄서있는 체험공간이 풍선아트와 페이스 페인팅부스인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예전에는 무엇 하나 배우려 해도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야했지만 이제는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많이 생겨 주부들이 근거리에서 적은 돈으로 배울 수 있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어 그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이라면 학교에 가서 일일교사도 할 수 있고 가족들 생일이나 기념일에 내가 직접 꾸밀 수 있으며 몸 담고 있는 단체에 나가서 자원봉사로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예이다. 노랫말처럼 파란풍선에 우리의 꿈을 담아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해보는 것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을 이끌고 지도를 하고 있는 최희웅 지휘자 만나보았다.

**Q**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의 창립동기와 역사, 단원 등이 궁금합니다.

**A** 유니크(unique) 청소년 교향악단은 2005년 7월21일 오케스트라 창단에 관심을 두던 지인들과 함께 서산시의 문화 향상과 청소년들의 꿈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창단 되었습니다. 특히 남현우 단장님과 팔봉중학교 송국범 선생님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으며 2008년에는 “유니크 문화센터” 라는 사단법인까지 조직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단원은 70여명으로 주로 예고 준비생, 예고생, 음대생들입니다. 서산시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태안, 당진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 단원들의 열정과 결속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서산의 연습실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sanunique>를 방문하시면 단원들의 공연모습과 사진,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의 단원이 되려면?

**A** 단원의 적격을 심사하는 오디션보고 선발하여 단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실력이 다소 부족 하더라도 연구단원으로서 연습과 지도를 통해 정식단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주로 무슨 활동을 하며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매년 20회 정도의 정기연주회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첫 연주인 2월 신년연주로 시작하여 소원 송년연주까지 의미 있고 흥미로운 연주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Q** 활동하면서 보람 있는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연주를 하는 것은 매 순간 순간 보람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에피소드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연주를 꼽으라면 서림 복지원, 홍성 유일원, 인애학교 등과 같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장애우들을 위한 연주입니다. 이 연주들의 관객은 편견 없이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눈과 귀로 음악을 느껴 주어 연주를 하는 우리가 되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연주자들도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다는 데에 보다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Q**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감상하는 것과 어떤 다른 매력이 있나요?

**A** 연주를 감상하는 것과 연주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꺼라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주를 통해 느끼는 감동과 보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감동을 느껴야 연주를 듣는 사람도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연습과 크고 작은 연주들을 통해 유니크 단원들과 관계자들은 벌써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를 듣는 사람들 또한 이 매력에 빠지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유니크 단원들의 실력과 참여도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 창단 초기의 포부처럼 청소년들의 꿈의 발판이 되는 곳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의미 있는 많은 연주와 유니크 단원들의 좋은 진학률을 통해 더 발전 하는 유니크 청소년 교향악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현대미술에 대한 **짜증**을 **생각**하기

그림 그리는 일이 좋아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언제부턴가 '화가' 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제는 아이 유치원의 부모 직업란에도 우물쭈물 '화가' 라고 쓴다. 그리고는 스스로 화가라는 것이 직업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도대체 화가라는 이름의 정체가 뭔가 하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기도 한다. 하지만 딱히 마땅한 답이 떠오르진 않는다. 그래도 화가라고 하면 "아 그러시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 주니 한편으론 편리한 이름이다. 어쨌든 어물쩡 화가요하고 지내다 보니 사람들로 부터 그림에 대해 이런 저런 질문을 받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부터 그림은 어떻게 보는데 좋은지, 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하는 것들인데, 그때마다 머리는 온통 복잡해지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길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사실 묻는 쪽은 명료한 정답을 바라겠는데 그림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그리 간단하질 않으니 어렵다.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미술과 관련된 책이나 잡지에 손이 가고, 예술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이나 기사를 눈 여겨 보는 편이지만 요즘 논의되는 현대미술은 그림하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림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눈에 비친 혼란스러움과 별반 다를게 없다.

그림이란 말의 어원은 '그리워하다' 라는 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몹시 보고 싶을 때 그림다고 말한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대상을 그려본다. 그 대상은 사람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하고 그 추억이 묻어있는 사물이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느 때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막연한 어떤 것이기도 할텐데, 우리는 그런 대상들에 이름을 붙인다. 김춘수의 꽃이나 한용운의 넘처럼. 그리고 화가들은 그 대상을 그림으로 그려낸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들을 그림으로써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애쓴다. 그림이 만들어 내는 세계는 우리를 매혹시킨다. 화면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빛과 색채들, 그리고 수많은 형상들은 때로는 친근하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그림 속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 준다. 그런데, 이 그림이라는 녀석은 변덕스러운 데가 있어서, 어느 때는 투명스럽고 고약하게 굴기도 한다. 가끔씩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아무렇지 않게 고향을 지르기도 한다. 그럴 때 보는 이는 당황하거나 주눅이 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지, 혹은 내 느낌이 정확한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설명을 부탁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고,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면 되는 것이라는 말도 듣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엔 보는 사람의 몫이 되버린다. 간혹 모범답안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어쨌면 처음부터 정답이 없이 그렇게 끝없는 질문들만 존재하는 것이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예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시대의 증인으로 존재하며, 작품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의식과 사상을 말해준다고 하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도 이제 G20의 의장국으로 나름대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도 많이

배출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있어서 아직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변방에 불과하다. 물론 백남준 같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도 있지만 백남준 예술의 근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의 예술적인 성취와 대한민국의 아트씬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고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 백남준이 세계적인인이었듯이 우리는 그저 세계인으로서 관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몇해 전 삼성이 세계적인 건축가를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을 불러 설계한 리움같은 곳도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답게 고가의 소장품 목록엔 외국의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미술 작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광화문이 복원되고 그 앞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서있지만 청계천에는 몇 십억짜리 올덴버그의 대서양산 소라껍질이 서있다. 과거는 우리의 것이지만 현재는 어찌면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울분과 회한이 많아서일까? 우리 상상속에서 문화라는 것은 여전히 전통의 이미지에만 머물러 있는 듯하다. 한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문화예술계에 화두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이 말 속에 분명히 유효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말이 풍기는 명분의 달콤함 말고는 딱히 현재에 유용한 것은 없어 보인다. 하기가 덕분에 광화문도 복원되고, 세종대왕님도 거리로 나오시고, 이순신 장군도 옷을 갈아 입으셨으니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인 국격도 높아졌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당대라고 부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골동의 모조 같이 창백해 보인다. 그럼 우리의 당대는 어디 있는 걸까?

얼마 전 태안의 한 중학교에서 겨울방학 미술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분야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야 미술시간에 많이 봤으리라는 생각에 교과서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법한 현대미술의 최근경향에 대해서 소개하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찾다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국의 현대미술 작가들 중에서 yBa(young British artists)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했었다.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이 젊은 작가들은 현대미술의 극점에서 움직이며 충격적이라만치 새로운 감각과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데미안 허스트로 대표되는 yBa는 가벼움과 저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상업주의에 물들어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진지함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 자체가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성찰하며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대를 표현하고 또 증명해 내고 있다. 화가라고 하면 고흐나 피카소 밖에 모르고, 아직 미술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다. 도대체 이런 것도 미술이야라고 할 만큼 동시대의 작가들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니 너무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때론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너무 멀어 우리의 가시권 밖에 있지만



데미안 허스트 - 신의 사랑을 위하여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와 동시대를 이루고 있고, 언젠가는 분명히 마주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은 예술의 큰 역할 중의 하나다. 대개의 사람들은 일상을 품위 있게 해주고 적당히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쁘고, 편안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원한다. 자신의 지각과 상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감당하기 힘든 스케일의 것들은 불편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미술작품도 기호품이니 당연하지만 그런 경우엔 인테리어 소품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때로는 낯설거나 거창한 것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자. 그런 불편함이 일상에 안주한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이미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제 꿈을 키우는, 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들끓는 사춘기 아이 들에겐 더욱 그렇다.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된다. 그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에게 주입시키기만 하는 사람에게 정보는 넘쳐나겠지만 스스로 그것의 의미는 상상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냥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고흐나 피카소, 그리고 김홍도와 함께 백년 전의 시점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라면 다음 세대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작가가 아닌 허스트나 트레이시 에민 같은 낯선 외국 작가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 오십년이나 백년쯤 후에 말이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그것을 관찰한다. 대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예술가에게든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상상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 그들은 짓고 허물고 다시 쌓는 과정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야 자신만의 새로운 집과 창과 문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창가에서 세상을 내려다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지어 놓은 이전의 집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보이지 않겠는가?

다양한 시각은 상상의 지평을 넓혀 준다.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 거기에서 형이상학이 생겨난다고 말한 과학자는 아마도 과학의 지평 너머를 통찰한 사람이었으리라. 자신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다른 이의 문을 두드린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상상한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차가운 바람은 불겠지만 사각의 틀 밖으로 세상이 더 넓게 보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절도 바뀌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동하겠다.

올 봄에는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가봐야겠다. 나선형 회랑의 난간에 기대서서 백남준의 다다익 선을 올려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상상한다.



## 글쓴이 소개

### 조 성 찬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 전공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최고기술자과정 수료
- 해울도예공방 운영

# 독립기념관에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평화의 비전을 경험하세요!

김 석 중 (독립기념관 교육문화부 차장)



(겨레의 탑)



(겨레의 집)

독립기념관(관장 김주현)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사건을 계기로 건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망동에 전 국민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국민성금을 모금하고 독립운동사 자료를 수집하는 등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유관순 열사·이동녕 선생·이범석 장군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천안의 흑성산록 120만평에 부지를 마련하여 1987년 8월 15일 역사적인 개관을 하였다.

독립기념관은 한민족 5,000년의 불굴의 역사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수많은 외침을 물리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 온 애국선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미래를 확인하는 겨레의 전당인 것이다.

독립기념관에 오면 제일 먼저 겨레의 탑을 만나게 된다. 겨레의 탑은 높이 51m의 조형물로,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와 양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영원불멸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겨레의 탑을 지나면 겨레의 집을 만나게 된다. 독립기념관의 상징이자 본관 건물이다. 길이 126m, 폭 68m, 높이 45m의 규모를 자랑하는 동양 최대의 기와집 건물로,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만들었다. 북경의 천안문보다 큰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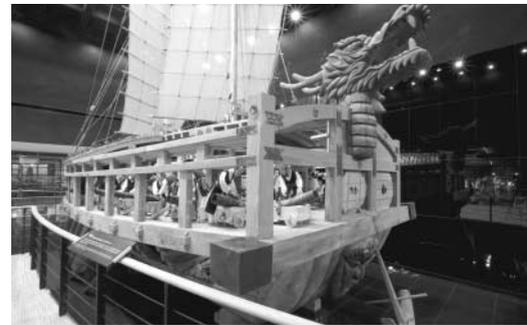
겨레의 집을 지나면 모두 7개의 전시관과 입체영상관을 만날 수 있다. 각 전시관 및 입체영상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전 시 관 명	내 용	대표적인 전시물
제1전시관(겨레의 뿌리)	우리민족 5,000년의 역사와 문화	거북선 모형
제2전시관(겨레의 시련)	근대국가로의 발전노력 및 일제침략	을사늑약체결 장면 모형
제3전시관(나라 지키기)	애국계몽운동, 의병전쟁	안중근의사 관련 자료
제4전시관(겨레의 함성)	3·1운동의 전개과정 및 영향	3·1운동의 전개과정 및 영향
제5전시관(나라 되찾기)	독립군, 광복군, 의열투쟁	윤봉길의사 의거 재현 모형
제6전시관(새나라 세우기)	민족문화 수호운동 및 사회운동, 임시정부	임시정부 요인 밀랍인형
제7전시관(함께하는 독립운동)	첨단매체를 이용한 독립운동 체험	안중근 의거 인형극
입체영상관	청소년 눈높이의 4D입체영상	“도토리 훈장” 상영

이밖에도 경내에는 “추모의 자리”, “통일염원의 동산”,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 솔숲쉼터 등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정신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어린이 독립군체험학교,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토요일 역사체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운동사연구 논문집 및 자료집 발간, 학술 심포지엄, 국내외 역사자료 수집 등의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7개의 전시관을 입체적이고 체험적인 전시관으로 교체하였다. 과거 지적 받아들인 평면적이고 나열적인 전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좋다. 관람만족도가 90점을 넘었다. 주차장에서 전시관에 이르는 동선에 의자 및 테이블 등의 휴식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백련못에 수변데크를 설치하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관람환경도 조성



(거북선 절개모형)



(입체영상관)



(통일염원의 동산)

“서비스품질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Easy Place”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관람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7년까지 연간 100만명 수준에 머물렀던 관람객이 2008년에는 121만명, 2009년에는 114만명을 달성하더니 작년 2010년에는 135만명을 달성하였고, 작년 8월에는 관람객 4,000만명을 돌파하였다.

우리 독립기념관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2011년에도 더욱 사랑받는 국민정신교육도장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에서 뜻 깊은 시간 갖으시기를 권유해본다.



- 입 장 료 : 무료
- 주차료(하루기준) : 2,000원(24인승 미만), 3,000원(25인승 이상)
-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 관람시간
  - 3월 ~10월 : 09:30~18:00
  - 11월 ~2월 : 09:30~17:00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번지
- 대표전화 : 041-560-0114
- 홈페이지 : www.i815.or.kr



○ ( 109 )

아산(牙山) 맹씨행단(孟氏杏壇)은 온양온천에서 구 온양을 거쳐 좌부리(左部里)라는 곳을 지나 설화산(雪華山)을 서남으로 등지고 배방산(排芳山)을 동북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온양온천역에서 39번 국도(외암로)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온양6동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에서 다시 623도로를 이용 동쪽으로 약 300미터정도 이동하여 고불로를 타고 약1km정도 이동하면 맹씨행단의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아산 맹씨행단 내에는 나무나이 600여년의 은행(銀杏)나무와 건물이 있다. 건물의 칸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주방쪽 좌우방 전면이 253cm이며, 길이는 563cm이다. 중앙 대청은 좌우 2칸인데 앞쪽이 앞마루 이고 측면에도 뒷마루가 붙어있다. 또 기둥과 도리에는 단포(單包)와 봉설(鳳舌)이 장식되어 있다. 이 집은 비록 큰 건물은 아니나 남북에 방이 있고 중앙이 대청으로 된 기와집으로 ㄷ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다.

이 집에 대한 설화로 최영(崔瑩)장군이 자기가 머물렀던 집을 손녀사위 맹사성에게 물려주었다는 말도 있으나 확인하기 어렵고 이 행단은 맹씨의 고택유허로 생각하면 되겠다. 맹사성(1360~1438)은 고려와 조선시대 사람으로서 우왕(禡王)때 장원하고 세종 13년에 우의정이 되어 명상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청백리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 자는 자명(自明)이며, 호는 고불(古佛), 동포(東浦) 이고, 본관은 신창(新昌)으로 온양출신이다.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서 여기를 행단이라 부르게 된 듯하나 공부하던 자리의 의미인 향단(香壇)이 와전되면서 행단이 된 것 같기도 하다. 고택 뒤편으로는 고불과 부친(맹희도), 조부(맹유)의 위패를 모신 사당 세덕사(世德祠)가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쳐 있고 전면 하단에는 후손일가들이 서거해온 별채의 건물들(안채와 대문간채 등)이 후일에 세워진 듯하다. 고택 본채는



온양문화원장  
김 시 겸



우리나라 민가류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고식수법(古式手法)을 보이고 있으며 전면 쪽으로 후일에 내어 달은 모습의 유구가 지중에 남아 있다.

초창년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482년, 1632년, 1929년에 각각 중수한 기록이 있고 1970년도에도 개수가 있었다. 가구부(架構部)에 남아 있는 고부재(古部材)와 분벽(粉壁)된 벽체, 창호(窓戶) 등이 견실한 고법을 간직하여 조선초기 이전의 건축모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맹씨행단의 뒷문으로 나가 약 100m쯤 걸어가면 오래된 정자를 볼 수 있다. 이곳은 맹정승이 당시의 명재상인 방촌(村集), 황희(黃喜), 독수와(獨樹窩), 권진(權軫) 정승과 함께 느티나무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어 구괴정(九槐亭)이라 불린다. 삼정승은 이곳에서 시를 읊고, 국정을 논하기도 하였으며 일하는 농민을 불러 위로하며 민심을 살피기도 하였다. 구괴정은 삼정승이 국사를 논한 곳이기 때문에 삼상당(三相堂) 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600여년의 세월에 7그루의 나무는 고사하였고 2그루의 느티나무만이 남아있다.



(顯忠祠)

( 76



난중일기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7년 동안에 싸움터에서 손수 쓴 진중일기(陣中日記)의 이름이다. 난중일기란 본시 특별한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정조 때에 이충무공 전서를 편찬하면서 진중에서 쓴 이 일기를 편찬자들이 편의상 “난중일기”라고 하여 이충무공전서 권5~권8에 걸쳐 수록한 후 난중일기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난중일기의 특색은 첫째, 계속해서 7년이나 집필하였으므로 분량이 많고 둘째, 생사를 걸고 싸우는 진중의 집필이며 셋째, 일기의 내용으로 보아 공의 엄격한 성품과 진중생

활, 그리고 당시의 국정에 대한 솔직한 감회, 전쟁 후의 비망록과 군사에 대한 비밀계획, 가족·친지·부하·

장졸(將卒)·내외 요인들과 내왕한 내용, 부

하들에 대한 상벌, 정사에 관한 서신

교환 등 광범위한 내용이 기

록되어 임진왜란 전체

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필

요한 사료가 되



며 넷째, 그 문장이 비범하고 간결하면서도 진실하며 충·효·신·의가 간곡하게 담긴 내용을 정성을 다 하여 쓴 충무공의 고백인 점 다섯째, 공이 손수 쓴 글씨인 만큼 필적에 예술적 가치가 있고 여섯째, 공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정의가 있었으며 민중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일기는 난중 7년 동안 공의 피와 눈물이 헤아릴 수 없이 배인 것이며 실세 없이 빗발치는 총탄과 화살 속에서 왜적과 싸우면서 틈틈이 계속하여 집필한 것으로 공의 후손들이 대대로 보존하여 400여년을 간직해 온 것이다. 현재 현충사에 소장되어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서울 건천동(현재의 인현동)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덕수(德水), 부친은 정(貞)이다. 어릴 때 아산으로 옮겨 살아 중가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며 이 중가에는 이충무공의 친필, 난중일기, 장계(狀啓), 우물, 활터 등이 보존되어 왔다. 조선 숙종 30년(1704)에 아산의 유생들이 사당 세우기를 상소하여 숙종 32년에 조정이 허락하여 사당을 세웠고 숙종33년에 국왕이 현충사(顯忠祠)로 사액(賜額)하였다. 그 후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훼손(毀撤)되었다가 1932년에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사가 중심이 되어 전 국민의 성금으로 현충사를 복원하였다. 1962년 충남도지사가 이충무공 탄신기념 사업위원장이 되어 경내를 확장하고 유물전시관 등을 신축 하였다. 1966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성역화를 계획하여 본전(本殿)등을 건축하고 1967년 현충사를 사적 제155호로 지정하였다. 1967년 이충무공 제422회 탄신기념 및 성역화 준공식을 거행 하였는데 한식팔작(韓式八作)집 본전과 내삼문, 홍삼문, 정려(旌閭), 정문, 고택, 충무정, 활터, 유물전시관, 그 외의 부대시설을 갖추면서 주변을 조정하여 민족의 성웅인 이충무공의 유허를 완전히 성역화 하였다.

- \* 난중일기(亂中日記) : 7책은 난이 일어난 다음 달부터 시작되어 중간에 약간 끊어진 데가 있으나 공이 전사한 전달까지의 군중일기(軍中日記)이고 후에 충무공전서에 전해진 난중일기의 친필초본이다. 그런데 전서(全書)의 난중일기와 비교해 보면 초본(草本)에서 전서에 생략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충무공의 시취(詩趣)가 넘치는 일상생활과 료우(僚友), 친족과의 왕래, 수군통제에 관한 비책 등 중요한 기사가 있다.



- \* 임진장초(壬辰壯草) : 표지에는 임진장초라는 제목을 붙이고 오른쪽 위에는 만역(萬曆)20년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면에는 여러 곳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인(全羅左道 水軍節度使印)이라는 주인(朱印)이 찍혀 있다. 이것은 공이 보고하고 군무에 대하여 지령을 청한 계달(啓達)의 글을 필록(筆錄)시킨 답록이다. 이것은 전서에 수록한 것보다 훨씬 상세한 곳이 많아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 서산문화원 회원안내

## ♠ 서산문화원이 하는 일 ...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 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 서산문화원이 발간하는 간행물과 서산문화원보(월간 스산의 숨결)을 매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스산의 숨결 : 각종 문화정보 및 문화원 행사 정보 수록
- 서산문화원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탐방, 체험학습 등)
- 문화원이 보유한 자료와 책을 열람 또는 소장할 수 있습니다.
- 문화원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지역문화발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문화원 회원 가입안내

- 가입방법 : 입회원 작성 후 연회비 납부(직접납부, 계좌입금)
- 회 비 : 연 20,000원 이상 (매월 자동이체 권장)
- 계좌번호 : 농협 455-01-169647 (예금주: 서산문화원)

## ♠ 2011년 문화원 회원 총회 참석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

- 입회원서 작성 후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자  
(2010년 회비납부자, 당해연도 회원가입자는 선거공고일 8개월(240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자)

입회원 작성 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669-5050)

문

화

원

소

직

## ■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모집과목 : 신규강좌, 생활공감강좌, 전문가육성강좌, 아동청소년 강좌 등 40개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월 14~18일
- 모집방법 : 방문접수(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 수강료 완납), ※키즈발레에 한해 접수 현장추첨
- 강의기간 : 2월 28일~6월 17일(16주) 단, 임산부강좌(8주) ※자세한 내용은 표지 및 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실버교육단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노인 인력을 활용한 교육형 일자리 사업으로 강사활동을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문화재해설, 한문, 서예, 장구, 전통 춤, 스포츠 댄스, 민요, 기타 교육 자격증 소지자
- 활동방법 : 문화유적지, 지역 아동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학교 등을 방문하여 특기·지식교육 및 학습전달.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신체가 건강한 자
- 모집인원 : 40명
- 모집기간 : 2011. 1. 30~2011. 02. 1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서산문화원 배치), 신분증, 사진(반명함), 자격증(소지자)
- 활동기간 : 2011년 3월~9월
- 근무시간 : 월 20시간(주2~3회)
- 월보수액 : 20만원
- 확정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 실버교육단 파견사업 수요처 신청기관 모집

### 개 요

- 전공, 경력, 사회경험이 풍부한 어르신강사가 직접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노인 대학, 문화유적지 등을 찾아가 교육.
-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어르신강사에게는 삶의 보람과 활력을, 어린이와 학생에게는 체험교육과 예의범절을 익힐 수 있는 산교육 기회제공.

### 참여방법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마을회관, 노인대학, 문화유적지 등
- 내 용 : 어르신 강사분이 직접 찾아가 교육 실시(강사료-문화원 부담)
- 분 야 : 문화재해설사, 전통무용, 한문, 장구, 서예 기타 등
- 교육기간 : 2011. 3~9
-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 작성
- 문 의 :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





# 시 | 정 | 소 | 식

## 2011년 『풀뿌리형마을기업』 육성계획 공고

### 1.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2. 사업 목표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단체를 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

### 3. 신청 대상

2010년도 자립형공동체 사업 선정 단체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 중점지원

### 4. 신청 사업 분야

#### ※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 지역특산품 · 자연자원 활용사업
- 재래시장 · 상가 활성화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 친환경 ·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태양열 · 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5. 단체 선정 시우대 사항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한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

지역사회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지속적인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업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이익의 사업을 추구하고, 지역의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민간시장이나 행정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 서비스 등 보완적 틈새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재래시장 등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이 제공되는 사업

### 6. 사업 기간 : 2011. 3. ~ 2012. 2. (12개월)



##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김학태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김정규 (서산시 석림동) 30,000원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박종옥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이형숙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김영수 (서산시 석남동) 100,000원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4,000원	• 박정미 (서산시 대산읍) 20,000원
• 김명림 (서산시 갈산동) 120,000원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이원구 (서산시 잠흥동) 20,000원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김경업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유용산 (서산시 잠흥동) 100,000원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30,000원	• 최복순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이견화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우정옥 (서산시 죽성동) 20,000원	• 김동열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이은우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김옥화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최일규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편세환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이형숙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정병임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민형익 (서산시 장 동) 20,000원	• 임미화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정명희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김종선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최선주 (서산시 지곡면) 20,000원	• 김연희 (서산시 석림동) 100,000원
• 신승철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강정준 (서산시 동문동) 30,000원	• 조부원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차정만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김현태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이규호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이풍호 (서산시 성연면) 20,000원
• 유정로 (서산시 운산면) 50,000원	• 안창수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이재진 (서산시 성연동) 20,000원
• 이세영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명향란 (서산시 석남동) 20,000원	• 이기선 (서산시 지곡면) 20,000원
• 이홍진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조병혁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이종기 (서산시 음암면) 30,000원
• 김정은 (서울시 강남구) 20,000원	• 호상규 (서산시 갈산동) 20,000원	• 박관희 (서산시 부석면) 20,000원
• 한영숙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김분환 (서산시 대산읍) 20,000원	• 김일석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이봉구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김강연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엄기택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홍만진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서경애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유후곤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이복구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서두석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이순희 (서산시 해미면) 50,000원
• 이흥구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이미연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동의 (서산시 탑곡리) 30,000원
• 김기운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최양숙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조재홍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안형식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김충권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류순일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지중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박민희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임선재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박병원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강경란 (태안군 동문리) 20,000원	• 김묘규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홍성구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강민자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이태수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김용길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박명화 (서산시 예천동) 20,000원	• 장순원 (서산시 부석면) 20,000원
• 유용곤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소복순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이석철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김정배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박현경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덕환 (서산시 성연면) 20,000원
• 이규수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노영애 (서산시 수석동) 20,000원	• 이순수 (서산시 음암면) 50,000원
• 성시경 (서산시 죽성동) 20,000원	• 정영숙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원중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리지하 (서산시 팔봉면) 20,000원	• 박병희 (서산시 예천동) 20,000원	• 김인옥 (서산시 죽성동) 60,000원
• 김기윤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박정균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유석순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경희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문미숙 (서산시 석남동) 20,000원	• 지수진 (서산시 지곡면) 20,000원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강우석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최중진 (서산시 석남동) 20,000원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신미숙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김정선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최재분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현구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최재연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안종미 (서산시 음암면) 40,000원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이용조 (충북 청주시) 30,000원	• 선다희 200,000원
------------------------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